

투데이

대형마트 휴일 월 4회로 확대 추진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 발의 야간 영업 금지·출점 제한 등 규제 강화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과 함께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발의됐다.

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일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각각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는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잡아 이르면 10월 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일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광주시 A·전남도 B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 광주시는 A, 전남도는 B등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SA·A·B·C·D 등 5개 등급으로 나눠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산·대전·경기·충남·경북 등 5개였으며, A는 광주와 울산·충북, B는 전남과 인천·강원·전북, C는 대구와 제주가 각각 받았다. 광주시는 주민소통과 웹소통 부문에서 최우수인 SA 등급을, 전남도는 목표달성 부문에서 다른 7개 지자체와 함께 SA등급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안부, 광주시 공기업 인사 검증조례 무효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광주시의회가 재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포함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상위법(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달 내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행안부의 이 같은 소송에 따라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대비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한편, 광주시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쳐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명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고 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제의를 거부했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오문철 "김성래에 박지원 로비자금 2억 더 줬다"

檢, 박지원·정두언 불구속 기소 검토

앞으로는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연필뉴스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대표가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성래(62·여·구속기소) 전 선안문고를 부회장에게 2억원을 더 건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은식 부장검사)은 최근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씨로부터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부회장에게 건넨 액수가 총 4억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선 조사에서 오씨는 김 전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로 7억원,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 등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 K씨를 한 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전 부회장이 실제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K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K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그러나 "로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김성래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K씨 측도 "김성래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합수단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박 원내대표를 이르면 다음 주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사단주주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전남 갯벌 수조, 농업박람회서 다시 만나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인기를 모았던 전남도관의 갯벌 수조를 나주 국제농업박람회(10월 5일~29일)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여수박람회

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전남도관의 갯벌 수조와 염전 수차 등을 해체하지 않고 나주 국제농업박람회장으로 옮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광주, 여수, 서울, 부

산 등 국내 23개 지자체관이 운영됐는데 전남도관은 신안 증도에서 갯벌 5t를 공수, 갯벌 수조(6×3×1.3m)를 만들었다. 이 수조 안에는 칠게, 농게, 말뚝망둥어, 농게, 갯지렁이 등의 갯벌생물을 그대로 옮겨놓는 등의 눈길을 끌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김창중 지명... 민주, 김이수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중태·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중(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1년 넘게 공석이던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진성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경경지원장, 서울지·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

임했다. 김창중 내정자는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법 의성지원장과 김천지원장, 대구지·고법 부장판사, 대구지·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대구지역 향판 출신이다. 김이수 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



이진성 김창중 김이수 로 임관했으며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 인사 단행

전남도는 16일 신임 행정지원국장 이호경 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역협력본부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실·국장(3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내년에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초대 사무총장에는 나승병 전 광안리관광재단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또 관광문화국장에 이승욱(전 행정지원국장), 광안리관광재단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 정인화(관광문화국장), 광안리관광재단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 주진호(광안리관광재단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씨를 각각 임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도 신임 국장 프로필. 이호경 행정지원국장, 이승욱 관광문화국장. Includes photos and brief bios for each official.

Advertisement for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Recruitment of trainees for Hanmun지도사 qualification).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Advertisement for '공무원 대출' (Public Servant Loan). Offers a 5.5% interest rate for loans up to 80 million KRW. Includes a table of interest rates for various loan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Mudeungsan Munminjeong Namgol-dang). Promotes a traditional Korean meal (Namgol-dang) and a scenic view.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menu items.